迎年祈世[[1]](#footnote-1)

　　李光洙

하늘이 붉으스레 솟아오른 새빗밧아

아시아 넓은 무티 어두움을 벗엇더라

이빗이 어디서 오뇨 우리 임금 이삿다

――日譯――

大空はあからみて

湧き上る新日の光に

大いなるアジヤの陸は

常闇を脱ぎにけるかな

この光いづこよりぞ

わが大君にこそましませ

1. 『京城日報』1940年1月11日夕刊4面 [↑](#footnote-ref-1)